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서방의 경제제재와 러시아의 대응

- 세계 경제의 블록화 위기

요약

2022년 2월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곧이어 2월 24일 러시아는 소위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했다. 러시아는 전쟁 목적이 영토 확장이 아닌 우크라이나 비무장화, 비나치화, 비NATO화라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미국과 EU는 물론 한국과 일본 등 여러 나라가 은행 부문과 첨단 제품에서부터 에너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강화해가고 있다.

크렘린 당국은 이런 조치들이 '경제전쟁'이라고 단언한다. 러시아 정부는 사태 악화에 대비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무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연간 20%로 인상하고, 외화 수익 강제 매각 등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했다. 러시아 정부는 약 1조 루블이 투입되는 100여 개의 긴급 경제 대응 조치 등 경제제재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여객기에 대한 서방 영공 폐쇄에 따른 대응 조치로 러시아 영공을 폐쇄하고 한국 등 '비우호 국가'를 대상으로 목재 수출 금지 등의 보복조치를 취하며 러시아에 수입된 ICT 관련 제품 등 200여 개 주요 기술 제품의 재수출 금지 등 자국 경제 보호조치에도 나서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진행 중이고 미국과 EU 등 서방의 경제제재는 강도를 더해간다. 러시아 정부도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보복제재를 검토 중이다. 한국 등 '비우호 국가'들을 대상으로 취해질 러시아의 보복제재는 에너지, 광물 자원 등 서방에 큰 타격을 주면서도 러시아 경제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품목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EU 등 서방 국가들은 경제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본격적인 대응 조치가 나오기도 전에 새로운 제재의 추가뿐만 아니라 중국 등 러시아를 도우려는 모든 국가의 시도를 차단하는 조치를 예고했다. 표면상으로는 러시아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중국, 인도, 중동 국가 등 경제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러시아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려는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세계를 거대한 블록으로 나누어가고 있다.

본고는 3월 24일까지 언론에 발표된 내용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로 야기된 서방의 경제제재와 그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책,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리해보고 간략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우크라이나 전쟁 이유와 평화협상 전망

푸틴 대통령은 2022년 2월 21일 러시아 안전 보장회의를 개최하고 2월 22일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했다. 이어 2월 24일 소위 ‘우크라이나 특수작전’에 들어갔다. 푸틴 대통령이 밝힌 ‘우크라이나 특수작전’의 주요 목표는 ‘돈바스 주민 보호’와 ‘러시아의 안전보장’이다. 이는 돈바스 군사작전 관련 연설문 첫 문장에서도 강조되고 있다.¹⁾

먼저 돈바스 주민 보호와 관련해서는 “거의 8년 동안 봉쇄, 대규모 징벌적 행동, 테러 공격 및 지속적인 포격과 같은 야만적인 방법으로 실제 대량학살의 대상이 된 돈바스의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두 번째 러시아 안전보장과 관련해서 제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돈바스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민스크 협정 이행을 무시하고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작년 말에는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NATO 가입 계획의 실질적인 시행을 시작했다”며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제 자체 핵무기와 운반 수단을 만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²⁾ 가까운 미래에 이미 외국의 기술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의 친나치 정권은 대량살상 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으며 물론 그 대상은 러시아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폭격 정보에 대비해 돈바스 주민을 러시아로 긴급히 대피시키다가 갑자기 전면적인 우크라이

나 공격에 나선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핵무장 발언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나치 정권’이 핵무장을 할 경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특수작전’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도 진행되고 있다. 3월 20일 현재 러시아가 전쟁 목표로 제시한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비NATO화, 비나치화 중에서 비NATO화는 NATO가 물러나는 입장을 취하자 우크라이나도 사실상 포기한 탓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문제 역시 비NATO화와 연계되어 일부 진전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비나치화 문제는 우크라이나 정권과 결부된 탓에 우크라이나 정부 측이 한사코 반박하고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 공식기관은 나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비무장화는 미국과 NATO 측에서 무기 공급을 확대하면서 우크라이나 측을 지원하고 있어 전쟁이 어느 정도 종료되기까지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측이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슬라브 동족 살상 최소화 등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대도시 포위와 군사기지 타격 위주로 전쟁을 진행하고 있고, 서방 측 무기 공급에 힘입은 우크라이나 측의 저항 등으로 전쟁은 장기화 조짐도 보이고 있다. 러시아 외무장관도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이 어렵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측이 계

1) kremlin, 2022. 2. 24,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67843>

2) TASS, 2022. 2. 23, <https://tass.ru/pol.kita/13793847>.

속 입장을 바꾸고 있고, 미국이 가능한 전쟁을 오래 끌려고 무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³⁾ 푸틴 대통령도 독일 솔츠 총리와의 전화

회담(3월 23일)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협상 과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지부진한 평화협상과 서방 측의 무기 공급 확대 등으로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 TASS, 2022. 3. 23, <https://tass.ru/politika/14154157>

2.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와 세계 경제 영향

(1) 서방의 경제제재

오래전부터 공언해온 대로 미국과 EU 등 서방은 우크라이나 사태 시작과 더불어 곧바로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단행했다. 사실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 경제제재는 크림반도 문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러시아 공포' 문제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패권경쟁과 결부되어 진행된 경제제재 중 첨단 기술, 핵심 소재 분야 등이 이미 오래전부터 제재 대상이 되어 있었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월 21일 러시아가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의 주권을 인정하자 당일 해당 공화국에 대한 투자 등을 금지하는 제재를 발표했다. 곧이어 2월 23일 미국은 VEB, Promsvyazbank(PSB) 등 러시아 금융 분야에 대한 제재를 추가했다. 2월 24일 러시아의 본격적인 우크라이나 작전 시작과 더불어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 시작했다. 3월 8일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 금지와 더불어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했다. 석유 및 석유제

품, 석유 연료 및 오일, 증류제품, 가스, 석탄 및 석탄제품 모두가 수입 금지 대상이다. 3월 11일에는 러시아에 대한 미국 달러 지폐의 수출, 판매 및 공급을 금지했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러시아 경제의 모든 부문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3월 20일 백악관 측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미국은 더 많은 은행과 러시아 경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문, 특히 에너지와 관련된 부문까지 포함하는 제재를 확대할 수 있으며 중국에 대한 경고도 강조했다.⁴⁾

유럽연합(EU) 역시 미국과 협의하면서 러시아에 대해 시기별로 유사한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다. 2월 26일에 서방 국가들은 국제 금융 거래에서 루블 환율을 지원하는 러시아 은행의 활동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3월 15일에 EU는 러시아에 대한 네번째 제재 패키지를 통해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와 러시아 철강 수입 금지를 발표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의 철금속 및 철금속으로 만든 특정 제품의 EU

4) TASS, 2022. 3. 21, <https://tass.ru/ekonomika/14129313>

수입 금지 조치가 연간 약 33억 유로 상당의 러시아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대기업 및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유럽 기업과의 경제관계 금지를 의미하는 제재도 추가되었다.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EU의 신규 투자 및 대출 금지에는 석유 및 가스 생산, 가스 액화, 정유, 석유제품 및 가스 유통, 발전소 건설 등이 포함된다. 신규 투자 금지와 함께 EU는 에너지 부문의 특정 장비(파이프, 시추 장비, 부유식 시추 플랫폼 등)를 러시아에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도 연장했다. 이전까지 러시아 내 심해, 북극 및 셰일 오일 탐사 및 생산에만 국한하여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프로젝트로 금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EU 국가로부터 러시아 광업에 대한 직접 투자는 2021년 10월 1일 기준으로 276억 달러에 달했다.⁵⁾

사치품도 수출 금지 대상이 되었다. EU는 또한 러시아 국영 기업과의 모든 종류의 거래를 금지했다. 이러한 제재로 인해 티타늄, 알루미늄, 구리, 니켈, 팔라듐 및 철광석뿐만 아니라 EU 국가에 러시아 화석 연료(석탄, 석유 및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거래가 어렵게 되었다. 러시아 기업인, 언론인을 포함하여 블랙리스트 기업도 확대했다. 4월 15일부터는 모든 러시아 고객에 대한 유럽 신용평가 기관의 서비스 제공도 금지되었다. EU 시장에서는 러시아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최혜국 대우에서 제외하는 조치도 취했다.

일본 역시 러시아가 돈바스 공화국을 승인한 때부터 제재를 시작했다. 3월 16일에는 미국, EU,

영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 금지 결정을 내렸다. 러시아에 대해 수출이 금지된 상품 및 기술 목록이 300개로 확대되었다. 특히 반도체, 해상 및 항공 보안 장비, 통신 장비, 무기 및 군수품, 폭발물, 방탄복, 원자력 관련 장비 및 제품, 화학공업제품, 각종 센서,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되었다.⁶⁾

기시다 총리는 3월 17일에 일본과 러시아연방 간의 8대 경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과제는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작전으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⁷⁾ 3월 18일에 일본 외무성은 러시아 국방차관 8명 등 개인 15명과 기업과 기관 9개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를 취했다.⁸⁾ Rosoboronexport, Russian Helicopters 및 United Aircraft Corporation(3개 모두 Rostec의 산하) 등 항공 분야 기업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다.

3월 25일에 일본 외무성은 러시아인 25명과 러시아 기관 81개에 대한 새로운 제재 패키지를 추가로 도입하였다. 3월 25일까지 제재 대상 개인은 101명, 기관 및 기업은 130개로 늘어났다. 레이저, 녹음기기, 트랙터 부품, 항공기용 가스터빈 엔진과 부품, 정유용 장비 등이 제재 대상에 추가되었고 조선소, 자동차공장, 바이칼 등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까지 제재를 확대했다.⁹⁾

호주는 러시아연방의 가장 중요한 수출 제품 중

5) RBC, 2022. 3. 15, <https://www.rbc.ru/economics/15/03/2022/6230cecb9a79470d0c0052f1>

6) TASS, 2022. 3. 16, <https://tass.ru/ekonomika/14082765>

7) 8대 경제협력은 2016년 5월 당시 아베 총리가 제안한 것으로 일본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 발전의 기반이 된 것이다. 에너지, 중소기업, 극동의 산업화 및 수출 기반 확대, 원자력을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와 인도적 교류 협력 강화 등을 협력 대상으로 한 것이다.

8) TASS, 2022. 3. 18, <https://tass.ru/ekonomika/14110213>

9) RIA, 2022. 3. 25, <https://ria.ru/20220325/sanktsii-1779973975.html>

하나인 알루미늄 생산에 타격을 주는 제재 조치를 가했다. 3월 20일 호주 정부는 알루미늄, 알루미늄 광석 및 보크사이트의 러시아 수출을 즉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호주는 알루미늄 생산을 위한 호주 원자재 수출 금지가 러시아 자동차 및 무기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러시아의 항공 우주, 엔지니어링, 건설 부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주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알루미늄 수요의 거의 20%가 호주로부터의 수출로 충족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조치로 인해 손해를 볼 현지 수출업체를 위해 새로운 시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¹⁰⁾

(2) 경제제재 강화 예고

유럽연합(EU)은 4차 경제제재에서 가스나 석유 부문 운송 등은 예외로 두었다. 또한 유럽연합 제재 규정에 따라 유럽의 에너지 안보가 위태로운 경우 러시아 파이프라인에 대한 투자를 허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었다.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공급되는 석유는 미국 소비의 약 8%에 불과하고 미국은 언제든지 이 물량을 자체 생산으로 대체하거나 외부에서 확보할 수 있는 데 비해 유럽은 대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러시아산 석유, 가스 및 석탄 공급에 대한 완전한 금수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반복해서 밝히고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한 다섯 번째 제재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리투아니아를 포함

한 발트해 연안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석유 금수 조치를 주장하고 있다. 독일은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성급한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경고한다.¹¹⁾ 크렘린 당국은 유럽연합이 러시아 석유 공급에 대한 금수 조치를 결정할 경우 세계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유럽의 에너지 균형을 악화시키며 모든 사람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¹²⁾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은 3월 24일 개최된 브뤼셀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가하고 이미 부과된 제재 조치를 우회하려는 러시아의 모든 시도를 차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¹³⁾ 또한 정상들은 러시아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전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식량 안보 요구에 대응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EU-미국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3) 경제제재의 세계 경제 영향

에너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는 예고 속에서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EU는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공급을 2/3 이상 줄이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른 국가로부터 500억~60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조달해야 하나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은 러시아에서 유럽으로의 가

11) TASS, 2022. 3. 21. <https://tass.ru/ekonomika/14129561>

12) TASS, 2022. 3. 21. <https://tass.ru/ekonomika/14131713>

13) TASS, 2022. 3. 25. <https://tass.ru/ekonomika/14179119>

10) TASS, 2022. 3. 20. <https://tass.ru/ekonomika/14125505>

스 공급량은 어느 나라도 대체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를 단행하면 유가가 300달러로 급증할 것이라고 러시아 에너지 담당 노박 부총리가 경고했다.

러시아는 비료 및 기타 농약의 주요 생산국이다. 이미 미국의 톤당 비료 가격은 지역에 따라 510달러에서 1,508달러로 3배 증가하기도 했다. 그로 인해 농업 분야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식품 가격이 급증할 것이라는 경고가 확산되고 있다. 3월 19일 독일 농무부 장관은 러시아의 식량 무기화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육류 소비를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최대 농산물 생산국”이라며 “마그레브,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은 이미 밀과 기타 곡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 12~18개월 동안 식량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¹⁴⁾

물류 비용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연방항공운송국은 서방과 러시아의 상호 영공 사용 금지로 인해 19개국의 외국 항공사들이 일주일에 최대 3,750만 달러를 추가로 지출한다고 3월 19일 밝혔다.¹⁵⁾ 항공권 가격과 물품 운송비 등의 상승으로 여객과 화주 부담이 불가피하며 늘어난 비행 거리로 인해 평균 이동 시간도 증가했다. 영국, 폴란드 등은 러시아 선박의 자국 입항도 금지했다.

핀란드에서는 러시아로부터의 종이 수입이 중

단되면서 종이 신문 발행이 몇 주 내에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¹⁶⁾ 일본의 철강, 건축자재 가격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 제재에 따른 공급망 차질 등으로 1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니케이신문이 3월 23일 보도했다. 2020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철강 수출의 약 11%를 차지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철강 공급 문제가 악화되고 고철 수요와 공급도 제한적이며 목재, 베니어판, 콘크리트를 포함한 기타 건축자재 가격도 폭등했다.¹⁷⁾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검토 중인 보복조치를 강화할 경우 세계 경제에 대한 충격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비우호 국가에 대해 목재 수출은 이미 금지되었으며 주철, 니켈, 티타늄 등 원자재와 역청, 철강 및 철강제품 공급 중단으로 건축자재는 이미 공급난이 가시화되었다. 문제는 러시아에서 공급하는 원자재의 상당 부분이 대체 공급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국가에서 조달한 대체 원료를 사용하려면 긴 테스트 기간과 인증 등 승인 절차가 필요하여 대체 자체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가속화와 소득 불평등 심화는 물론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 폭등으로 유럽과 북미의 노동계급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우크라이나 상황이 미국을 조기 쇠퇴로 이끌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4) TASS, 2022. 3. 25, <https://tass.ru/mezhdunarodnaya-panorama/14176611>

15) kommersant, 2022. 3. 19, <https://www.kommersant.ru/doc/5269491>

16) interfax, 2022. 3. 23, <https://www.interfax.ru/world/830810>

17) 일본 은행이 취합한 기업 상품 가격 보고서에 따르면 2월 목재 및 철강 등 건축 자재 지수는 124.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15년 평균은 약 100). TASS, 2022. 3. 23, <https://tass.ru/ekonomika/14151927>

3. 경제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러시아 측에서는 서방의 경제제재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공포’를 정치 수단으로 하는 세력 때문에 지속적으로 진행될 문제로 인식해왔다. 제재 대상 역시 군사력 증강과는 관련 없는 것이어서 러시아 경제력 확대 자체를 차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고 있었다. 전투기도 아닌 민간여객기 개발을 차단하고자 탄소 섬유 등 소재 공급을 중단하거나 통보도 없이 기술 협력을 중단한 것 등이 그러한 사례라고 지적한다. 그 때문에 경제제재에 대한 대비책으로 러시아는 수입 대체 정책과 더불어 핵심 기술 개발, 외환보유고 증대, BRICs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특히 중국과의 광범위한 협력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왔다.

러시아의 에너지 담당 부총리 노박은 러시아 탄화수소가 없으면 가스 및 석유 시장이 붕괴될 것이라면서 러시아 탓이 아닌 유럽 정치인들의 역량 부족으로 유럽 내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¹⁸⁾ 노박은 또한 미국의 압력으로 이미 건설된 Nord Stream 2 가스 파이프라인 출시를 금지한 것은 터무니없으며 그로 인해 유럽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고 그 결과 지난 1년 동안 유럽의 전기료는 10배, 가스값은 5배 증가했고, 독일의 석유제품 가격은 최대 40%까지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어떤 곳에서는 가스 가격이 1,000 입방미터당 최대 4,000달러에 도달했으며 그것이 끝도 아니라고 경고했다. 또한 유럽의 지하 가

스 저장 시설의 가스 저장량은 작년에는 30.6%였고 지금은 26%에 불과하다며 금년에는 가스 저장고에 가스를 채우지 못할 위험이 훨씬 더 높다고 지적했다.¹⁹⁾

크렘린 당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해 미국이 러시아와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자국 이익을 보호하고 러시아의 이익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²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월 23일 정부회의에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는 불법적인 결정을 내려 달러와 유로는 신뢰를 잃은 ‘손상된’ 통화라면서 러시아는 비우호 국가들에 대해 천연가스 공급을 루블로만 거래한다고 발표했다.²¹⁾ 성명서 발표 후 1시간도 안 돼 모스크바 거래소에서 달러 가치는 3월 3일 이후 처음으로 100루블 아래로 떨어졌다.

독일 의회 관계자는 러시아 가스 대금을 루블로 지불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유럽의 보이콧은 더욱 촉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²²⁾ 슬로베니아 총리는 유럽의 어느 누구도 가스 비용을 루블로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

19) RIA, 2022. 3. 23, <https://ria.ru/20220323/gaz-1779603885.html>

20) TASS, 2022. 3. 9, <https://tass.ru/ekonomika/14009631>

21) 푸틴 대통령은 2022년 3월 23일 정부회의에서 “지난 몇 주 동안 많은 서방 국가들이 이른바 러시아 자산 동결에 대해 불법적인 결정을 내렸고 이 집단적인 서방 국가는 실제로 자국 통화의 신뢰성 아래 선을 긋고 신뢰를 벗어났다. 미국과 EU는 원칙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의무 불이행을 선언했다. 이제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달러와 유로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의심했고, 이제 모두가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상품을 유럽 연합과 미국에 공급하고 달러, 유로 및 기타 여러 통화로 대금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명백하다”고 말했다. TASS, 2022. 3. 23, <https://tass.ru/ekonomika/14158017>

22) TASS, 2022. 3. 24, <https://tass.ru/ekonomika/14163087>

18) GAZETA, 2022. 3. 23, <https://www.gazeta.ru/politics/news/2022/03/23/17465365.shtml>

는 의견을 표명했다. 불가리아와 몰도바는 루블로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고 오스트리아는 계약상의 통화인 유로로 계속 지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 재무상은 실제로 어떻게 시행될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렘린 대변인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좋든 싫든 루블로 가스를 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산업 외에도 우주산업도 국가 통화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로스코스모스(Roscosmos)의 책임자인 Dmitry Rogozin은 로스코스모스가 러시아 통화로 새로운 국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러시아와 인도는 무역 결제에 자국 통화를 사용

하는 것에 대해 협상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는 거의 동시에 러시아 석유 공급을 위해 위안화 결제로 전환할 가능성을 발표했다. 인도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란과도 국가 통화로 결제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오랜 미국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도 석유를 위안화로 지불하는 문제로 중국과 협상을 시작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배경으로 러시아 가스의 루블화 판매 문제를 탈달러화를 목적으로 하는 통화전쟁으로 보는 시각도 제기되기 시작했다.²³⁾

23) TASS, 2022. 3. 25, <https://tass.ru/ekonomika/14174295>

4. 러시아의 비상 경제 대책

서방의 러시아 경제제재에 대한 영향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석유 및 가스 회사 Equinor(구 Statoil)가 3월 15일 러시아산 석유 및 석유제품 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3월 18일 세계 최대 유전 서비스 기업 중 하나인 Schlumberger도 러시아에서의 활동에 대한 추가 투자 및 기술 구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인 르노는 3월 23일 모스크바 공장의 운영을 중단하고 AvtoVAZ 지분에 대한 옵션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생산을 위한 첨단 장비 및 부품 공급 금지를 의미하는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제재에 따른 모든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러시

아에 있는 4만 5,000명의 직원에게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라고도 밝혔다.²⁴⁾ 이 같은 언급은 앞서 러시아 정부가 근로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러시아를 떠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자산 몰수나 형사고발 등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경제제재를 배경으로 러시아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연방 산업통상부 장관 Denis Manturov는 “우리는 여전히 모든 주요 (자동차)브랜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누군가와 함께 우리는 그들이 보존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

24) TASS, 2022. 3. 23, <https://tass.ru/ekonomika/14164959>

생산 능력과 우리 시장에 대한 부품 공급 모두다. 일부 제조업체는 영원히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작별 인사를 하게 되어 유감이다”라고 밝혔다.²⁵⁾

러시아 중앙은행은 러시아 경제가 인플레이션 상승을 동반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제재가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증가시킬 것이지만 러시아 경제는 제재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기업인들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과 자유

화, 행정 규제 철폐, 불필요한 사업 점검 중단 등으로 제재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 개발 및 제재 대응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²⁶⁾

첫째, 러시아 경제는 확실히 새로운 현실에 적응할 것이다. 기술 및 과학적 주권을 강화하고 농업, 제조, 기반 시설 및 주택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자원을 할당할 것이다. 빠르게 성장하고 역동적인 국제 시장을 기대하면서 대외무역 관계

25) TASS, 2022. 3. 22, <https://tass.ru/ekonomika/14146511>

26) kommersant, 2022. 3. 17, <https://www.kommersant.ru/doc/5260087>

〈표 1〉 러시아의 주요 위기 대응 및 지원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차원의 제재 대응 본부 운영 · 국민 안정 대책 -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공공부문 급여, 연금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혜택 확대 예정 · 금융시장 안정 대책 - 러시아 중앙은행은 2월 28일부터 기준금리를 연 20%로 10.5%포인트 인상 - 금 매입 재개(2월 1일 기준 러시아의 금 보유량 1,323억 달러) - 투자자 유출 및 러시아 주식시장에서 자금 인출 방지 조치 · “통화 규제 분야에서 러시아연방의 재정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임시 경제 조치에 관한” 법령에 서명(3월 18일, 푸틴 대통령) - 기존의 재정적 안정 보장을 위한 조치 · GDP 성장 유지 및 경제 안정화 조치 - 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의 조치를 통해 경기 침체의 규모 완화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에 대한 곡물 수출을 6월 30일까지 잠정 금지 -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품의 가격 고정 검토 · 기준금리를 연 20%로 유지 결정(중앙은행, 2022년 3월 18일) - 금융안정 뒷받침, 물가상승 억제 - 2024년에 연간 인플레이션을 4%로 되돌릴 수 있는 여건 조성 · 디폴트 대책 - 러시아 정부는 디폴트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오랜 기간 준비 - 러시아 외화보유고는 약 6,400억 달러, 그중 약 3,000억 달러가 제재로 동결(재무장관), 디폴트는 외국에 의한 인위적 조치에 불과 - 재무부는 비우호적 국가에 대한 부채를 루블로 지불 발표 · IT 부문 지원 - 첨단 기술 기업은 3년간 소득세 납부와 검사 면제 - 국가 중추기업 목록에 무선 전자 설계국 포함(Baikal 및 Elbrus 프로세서 개발 회사) · 중소기업 지원 - 개별 기업가와 소기업에 대한 정기 점검 유예 - 농업인 우대 대출

자료: 3월 16일, ‘러시아연방 구성 기관의 사회적, 경제적 지원에 관한’ 회의 자료 등 러시아 정부 발표 자료 정리.

를 계속 발전시킬 것이다.

둘째, 새로운 현실은 우리 경제에 깊은 구조적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일시적인 인플레이션과 실업 증가로 이어질 것이므로 과제는 그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셋째, 물가상승이 국민의 소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급여와 연금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급여를 인상할 것이다.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를 인상하고 공공 부문 급여도 인상한다.

러시아 정부는 푸틴 대통령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재 압박 및 경제위기 대책으로 시민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해가고 있다. 예

를 들면 지역 및 고용 서비스 지원 확대, 기업 대출 보조, 기업의 운전 자본 보충 등이다. 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로는 대출 상환 연기, 신용한도 설정, 보조금 제공 등이 제공되고 고용 서비스 400억 루블 추가 지원, 기업의 운전 자본 400억 루블 보충, 중소기업 대출 금리 보조 140억 루블, 주요 농업 기업 운영 보조금 260억 루블 등이 할당되었다.²⁶⁾ 푸틴 대통령은 기준금리 인상을 배경으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우대 모기지 비율을 7%에서 12%로 늘리자는 정부의 제안에 동의했다.²⁸⁾

27) kommersant, 2022. 3. 17, <https://www.kommersant.ru/doc/5260233>

28) TASS, 2022. 3. 23, <https://tass.ru/nedvizhimost/14160037>

5. BRICs 국가들의 대응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국의 러시아 지지 발언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3월 17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국제법 규범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제재에 반대한다. 제재는 세계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미국은 침체를 겪고 있는 세계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²⁹⁾ 3월 20일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3월 18일에 진행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화에 대해 논평하면서 중국은 외부 압력을 용납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³⁰⁾

29) TASS, 2022. 3. 17, <https://tass.ru/ekonomika/14098965>

30) TASS, 2022. 3. 20, <https://tass.ru/mezhdunarodnaya-panorama/14125755>

인도 역시 서방의 경제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러시아와 독자적 협력관계 구축을 전개하고 있다. 3월 17일에 인도 외무부 대변인은 에너지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으로 채우고 있는 인도는 러시아를 포함해 모든 석유 공급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앞서 인도의 석유 및 천연가스 장관은 인도가 우크라이나의 위기 속에서 루블과 루피 결제를 통해 원유를 판매하려는 러시아의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질 역시 중국이나 인도 등 여타 BRICs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독립적인 입장을 유지한다. 브라질은 국익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2월 27일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이 발표했다. 브라질은 비료에 민감하다. 브라질이 세계 인구의 거의 20%에게 식량을 공급한다.³¹⁾

브라질 외무장관은 3월 25일 “브라질은 일방적이고 선택적인 제재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

러한 조치는 국제법적 관점에서 불법이며 제재가 세계 많은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필수품에 영향을 미친다. 주요 위협의 결과는 중기적으로 러시아가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미칠 것이며 선진국들은 자신들을 보호한다”고 강조했다.³²⁾

31) TASS, 2022. 2. 28, <https://tass.ru/mezhdunarodnaya-panorama/13890883>

32) RIA, 2022. 3. 25, <https://ria.ru/20220325/sanktsii-177997227.html>

6. 맺음말

러시아와 중국은 2021년 12월 15일에 진행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화상 회담에서 미국에 의한 세계 시스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에 맞추어 중국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국제관계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2022년 2월 4일 발표했다.³²⁾ 동 성명서에서 “중국 측은 유럽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장기적 안전보장의 형성에 관한 러시아의 제안을 이해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이버 정보전쟁과 함께 패권 장악을 위한 경제전쟁이 본격화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상 패권전쟁의 일부분이다. 평화협상에 의하든 아니면 군사적 영토 점령이 완료되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패권전쟁을 둘러싼

경제전쟁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천연가스 공급을 루블로만 정산하겠다는 푸틴 대통령의 2022년 3월 23일자 선언은 러시아 자산 동결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조치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본격적인 통화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는 주장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에너지위기, 식량위기, 자원위기도 시작되었다. 러시아가 에너지, 식량, 자원 강국이라는 점에서 공급망 재편 혼란과 더불어 위기는 한동안 계속되며 심화되어 갈 수 있다.

지난 3월 7일에 러시아는 미국과 EU 국가들을 ‘비우호 국가’로 지목했다. 우리나라도 포함됐다. 유럽에서 전개되는 정치 군사적 분쟁은 물론이고 경제 측면에서도 우리는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다른 상황이다. 에너지도 없고 식량도 없고 자원은 더더욱 없다. 우리는 무역으로 살아가는 나라다. 북한과의 관계도 있어 우리는 일본과도 다른 상황이다. 이웃한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고 러시아와도 항공·우주를 비롯한 첨단산업 과학기술 분야와 에너지, 식량, 광물자

33) kremlin, 2022. 2. 4, <http://www.kremlin.ru/supplement/5770>

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가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와 더불어 에너지, 식료품 등 세계 각국의 물가 인상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의 물가 상승은 시작에 불과하고 러시아의 보복조치가 확대되어 에너지 분야 자원 분야까지 확대되고 물류망까지 단절되면 산업 공급망 왜곡까지 겹쳐 세계 경제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장기화될 수도 있다.

초강대국 패권전쟁에 휩쓸려 어느 한쪽만 보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가 아니다. 남북한 문제와 더불어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할 때 '역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재 정책은 제재를 가한 국가에 대한 제재의 역효과를 고려해야 하므로 이 효과는 '극복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³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우리 역시 경제 전반에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34) RIA, 2022. 3. 23, <https://ria.ru/20220323/effekt-1779549072.html>

어려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 및 속고와 더불어 기업 의견도 충분히 들은 후에 우리 입장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재에 동참한다 해도 오랜 시간을 두고 제재 대상별 분야별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다.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EU 국가 대부분도 주저하고 있다, 원자력 분야, 핵심 광물자원 분야 등 미국도 자국 이익에 중요한 부분들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도 제재의 '역효과'를 고려하면서 제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자국의 이익을 바탕에 두고 대응해가고 있다. 반러시아 제재에 인도의 동참을 요청하여 러시아 측의 분노를 일으켜 일본에만 국한된 타깃 제재를 받는 그런 상황은 피해야 한다.

미국과 EU, 중국-러시아를 축으로 인도-브라질 등 거대 국가들이 관여하는 블록 간 패권전쟁에서 냉정한 입장을 견지하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패권전쟁과 사이버 정보전쟁에 휘둘려 희생양이 되지 말고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다. 



김학기

해외산업실·연구위원

hkkim@kiet.re.kr / 010-9084-4646

「4차산업혁명 시대의 대북방 협력방안」(공저, 2020)

「러시아의 무인항공기 산업 동향과 한-러 협력에 대한 시사점」(2020)